중생 위해 부처님께 수행법 묻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⑩ 〈원각경(圓覺經)〉 3

중생이 부처님처럼 살기를 원하면 그 때부터 보살이라 불린다. 보살의 수행은 자리이타로 일체 모든 생명을 나와 더불어 평등하게 여긴 곳에서 출발한다. 중생의 마음, 보살의 마음, 부처님 마음 이 중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당연히 부처님 마음이다. 바로 원각(圓覺)이다.

"선남자여, 이 〈원각〉은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라밀을 언제나 갖추고 있어서 다 이 원각을 밝게 비춤으로 인하여 청정한 경지에 이르러 무명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문수보살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등불 없이 어둠에 갇혀있다 하여 '무명(無明)'이라 부른다.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 원각의 길이니 지혜를 가까이 하여 그 지혜에 의해 존재의 '空性'(공성, 조화와 공존)을 잊지 말라 하신다. 불성이 있다고 누구나 성불하진 않는다. 스스로 불성을 빛나게 하는 이라야 부처가 되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2,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도 상세히 알려주신다.

"알거나 느끼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고, 허공인줄 아는 것도 허공 꽃의 모양이거니와 알거나 깨닫는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있다, 없다하는 이 분별심을 넘어서야 비로소 청정원각을 수순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공의 성품은 본래 고요하여 요동하는 법이 없다, 여래장 속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보는 것이 없으며 법계의 성품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지법행이다. 보살수행자들은 이로써 대승법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킬 것이고 말세의 중생들도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삿된 견해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원각경〉은 12명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원각에 이르는 길을 날카롭게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려주시는 내용이다.

먼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인지법행에 관해 묻자 부처님은 무명을 청정한 원각으로 물리치며 부처의 경지로 전진하라고 답하신다.

두 번째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은 수행의 실체에 관해 묻자 환(幻, 허망한 성품)을 벗어나는 방법을 원각묘심인 본각(本覺)에 대해 설명하신다.

세 번째 보안보살은 마음쓰는 법을 질문하자 부처님은 점차적으로 수행하고 반드시 방편을 세워 관행하여 부처님 세상을 보도록 인도하신다.

네 번째는 금강장보살로 중생미혹의 본질에 대해 묻자 미혹의 생성과 소멸을 낱낱이 분석해주며 의심을 타파한다. 또한 중생이 원각 그 자체임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다.

다섯 번째 미륵보살은 중생이 윤회하는 까닭을 묻자, 부처님은 의심을 풀어줘도 중생심이 꿈틀거리는 것은 오로지 근본욕망인 애욕 때문이니 애욕은 자비심으로 풀도록 하고, 윤회의 본질과 벗어나는 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잊지 않으신다.

여섯 번째는 청정혜보살로 어리석은 중생심을 청정케 하는 수행의 계위를 묻자 수행은 체험이니 단계적으로 설명하신다.

일곱 번째는 위덕자재보살로 관법수행을 묻자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3관수행을 말씀하신다.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순간에 수행해서 화내기 전으로 돌아가 평온을 유지하라신다.

여덟 번째 변음보살은 앞에서 말한 삼관을 닦는 순서를 묻자,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25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며 수행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을 하신다.

아홉 번째 정제업장보살이 등장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미세한 업장, 바로 사상(四相)을 제거하는 방법을 물으니 미혹을 끊고 성불의 원인을 완성하라며 상세히 설명한다.

열 번째는 보각보살로 참선하는 중에 생기는 병은 어떻게 고치는가 질문하니 스승을 의지하여 작지임멸(作止任滅)의 병을 치유해야만 청정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하신다.

열한 번째는 원각보살로 여래가 떠난 후 말세중생의 수행을 묻자 업장 참회를 위해 자신의 근기에 따라 날짜를 정해 참회와 사유하는 수행에 관한 도량수행법을 말씀하신다.

열두 번째는 현선수보살로 후대에 제자들은 어떻게 수행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신수봉행(信受奉行)을 질문하자, 경전의 이름 다섯 가지를 설명하며 유통공덕을 말씀하신다. 〈끝〉

〈서울 반야사 주지〉

내 속의 아는 능력 생기는 과정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㊴ 마음수행법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어머니는 허약해서 내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니, 내 안에 있는 불쌍하게 보는 마음(소질)을 어머니에게 단단히 붙여 놓고, 정말 불쌍한 존재로 착각한 것이 분명하게 알게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분별심을 상대에게 탁 덮어씌우고 보니 상대가 제대로 보일리가 있느냐는 선지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마음(분별심)이 바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공감하며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실감났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너를 효자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밝은 이가 보면 네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네 어머니는 실은 네 어머니가 아니요 어머니라는 네 생각일 뿐이다. 그것은 네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마음 밖의 모든 현상(어머니를 포함)은 네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네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 이치로 네가 세상을 꾸짖는 것은 실상 세상을 꾸짖는 것이 아니요, 바로 자신을 꾸짖고 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딱하고 불쌍하게 보는 사고방식이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장에서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그 마음을 해탈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나는 불쌍하고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식께서는 어머니와의 업보를 해탈하지 않는 한, 즉 내 마음 속에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사고방식을 없애지 않는 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불교수행과 사회생활을 연관시키는 법문인데, 이 법문이 처음에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수행이 사회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불교는 마음 닦아 생사해탈을 하는 가르침일 뿐, 현실에서 잘 사는 것이나 무능력자가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된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소질이 어머니를 불쌍한 존재로 보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 불쌍하게 보는 소질에 대고 '미륵존여래불'을 정진한 결과,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딱한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 얼굴에 대고 '미륵존여래불'을 계속 염송합니다.

정진을 하는 중에 어느 때는 어머니가 노란 옷을 입고 나를 향해서 오는 모습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이면 어머니가 노르스레한 옷을 입고 수도장으로 나를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어머니가 올 것을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내 속에도 부처님처럼 무엇인가 아는 능력이 분명 존재한다는 믿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금강경〉 공부 결과 비몽사몽 간에 알게되거나 보는 현상을 우리는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경계로 현실을 파악해 알 수 있었고, 또 꿈으로도 궁금하였던 여러 가지를 알게 되어 해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해답은 분별이 소멸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분별심이 사라지면 더 큰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불자(拂子) '이 뭣고'

백장선사가 마조선사를 친견하러 갔을 때 마조가 불자(拂子)를 꼿꼿이 세우자, 백장이 물었다.

"이것 그대로 마음을 씁니까? 아니면 이것을 떠나서 마음을 씁니까?"

마조가 불자를 선상 귀퉁이에 걸어놓고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그대는 훗날 이렇게 두 입술을 함부로 놀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려는가?"

이에 백장이 마조의 불자를 빼앗아 꼿꼿이 세우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 그대로 마음을 쓰는가? 아니면 이것을 떠나서 마음을 쓰는가?"

백장이 불자를 들어 선상 귀퉁이에 걸었더니 마조가 우렁찬 할을 내지르니, 백장은 그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귀가 먹어 버렸다.

마조는 일없이 불자를 세워 잠잠한 백장의 가슴에 파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백장은 스승의 의중을 간파하고 먼저 질문을 던진 것이다. 백장이 제기한 문제는 가문의 비밀을 백일하에 누설한 것이며, 마조 자신의 보검(寶劍)을 탈취해 휘두른 것과 같았다.

불자(拂子)를 우진(拂塵)이라고도 한다. 이는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 번뇌를 털어내는 데 사용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불구(佛具)이다. 그러나 '이 뭣고'는 생활속에서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활용(活龍)이며 찰나에 번뇌(煩惱)를 소멸시키는 금강보검(金剛寶劍)의 작용(作用)이다.

수산주가 지장계침선사를 찾아가니, 수산주에게 묻기를 "어디서 오는가?"

수산주는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佛法)은 요즘 어떠한가?" "분별(分別)이 끝이 없습니다." 이에 선사가 "어찌 여기서 밭에 씨앗을 심어서 밥을 먹는 것만 하겠는가?"하시니, 수산주는 수천 리를 걸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와서 친견했으나, 선사의 의중(意中)을 바로 깨치지 못하고 한 번은 돌아갔다.

조사(祖師)들이 제시한 본분의 의표(意表)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언하(言下)에 번갯불 속에서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이 해야한다. 신심(信心)과 도심(道心)이 철저한 수산주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계침사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다.

그런데 계침선사께서 병석에 누워계시니, 수산주가 인사 드리고 신세타령 하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 찾아왔건만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되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모두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누워계시던 계침선사가 조용히 일어나 좌정하시더니 불자를 잡고 하시는 말이 "이 불자는 영겁에 한 찰나도 너를 등진 적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그러자 수산주가 언하대도(言下大道) 하였다. 뼈에 사무친 일구월심(一久月心)이 일언지하에 도(道)를 성취하게 한 것이다.

운봉성수선사가 선지식으로 명성이 자자한 혜월선사를 친견하고 물었다.

"삼세의 모든 제불(諸佛)과 역대 조사는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하고 계십니까?"

이에 혜월선사께서 양구하니, 성수 스님께서 냅다 한 대 치면서, "산 용이 어찌하여 죽은 물에 잠겨 있습니까?"라고 하니 "그럼 너는 어찌 하겠느냐?"고 말했다.

성수 스님이 불자를 들어 보이니 혜월선사께서 "아니다" 하시니 성수 스님께서 다시 응수(應酬)하길 "스님, 기러기가 창문 앞을 날아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고 하자, 혜월선사께서 한바탕 크게 웃으시며 "내 너를 속일수가 없구나" 하시며 성수 스님을 인가하시고, 호를 운봉(雲峰)으로 정하고 전법게를 내렸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본무진실상(本無眞實相) 어상약무상(於相若無相) 즉명위견성(卽名爲見性) "일체의 유위법은 본래 진실된 모양이 없으니 저 모양 가운데 모양이 없는 줄 알면 곧 이름하여 견성이라 함이라"는 말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기봉 전통 범패 의식 강원

전통 불교의식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식 전문 학인을 모집합니다.

◆ 응 시 자 격 ◆

① 입 학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생(음악,국악과) 등 일반
② 제 출 서 류 : 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사본, 해당자)
③ 전 형 일 정 : 2019년 1월 8일까지
④ 개강 기초반 : 2019년 1월 8일 (매주 화요일)
⑤ 상주 권공 : 2019년 1월 11일 (매주 금요일)
⑥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⑦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대흥로 26번지 대은사

※상 담 문 의 : 010-9170-3631

법고무 특강

개 강 | 2018년 11월 19일 (매주 월요일) ~ 2019년 1월 28일 까지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까지
지도 강사 | 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 조교)

74개의 명당자리가 한 곳에 모여있는

화제의 신간

신비의 명혈명당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천하(天下)를 지배한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세상(世上)을 변화시킨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입신양명(立身揚名)한다!



천하대지(天下大地)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이 한 장소에 74개씩 네 곳에 296개가 모여있는 명혈명당(名穴明堂)의 실체(實體)를 밝히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468쪽 / 정가 30,000원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분지혜神智慧로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들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분지혜로 꿰뚫어 자성의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론·원정주해·주진통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법회 세웁스님 신국판양장 / 936쪽 / 정가 70,000원

원 각 경 요해
圓 覺 經 了 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겁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법문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분기정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삼매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멸 분제두수 무소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법회 세웁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불교 羅明珠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